

목아 박찬수 '불교미술 40년 회고와 전망'

반가사유상 등 108점 전시



◇홍승(弘承)의 나뭇결을 잘 살린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



◇비자적(毘遮)에 정교하게 조각한 '자모관음입상(子母觀音立像)'.

'장인'의 또다른 이름은 예술가이며,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모두 다 '예술품'이다. 이 시대 전통 목조각의 장인인 목아 박찬수(목아박물관장,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 108호)의 40년 예술인생을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서울 법연사 불교미술관에서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목아 박찬수, 불교미술 4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보급 불상의 모작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파계사 관세음보살좌상, 상원사 문수동자상, 윤장대, 법상, 동자상, 나한상 등 108점이 선보인다. 우선 미술관 현관에 들어서면 박 관장의 초기 작품인 장승, 솟대, 탈, 도깨비 등 전통민속조각품 25점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옆 1층 전시실에는 '명상에 잠긴 삼매동자', '팽이를 돌리는 동자의 율회' 등 작고 통통한 불상의

석가여래좌상 화려·정교함 극치
아미타·삼존여래 목각탱도 선보
"비구상·추상작품도 작업할 계획"

표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동자상과 나한상 30여점이 있다. 박 관장의 최근 작품들을 감상하고 싶다면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 보자. 48개의 붉은 소나무에 금칠을 하고 연꽃을 조각해 대나무 못으로 감쪽같이 붙인 석가여래 좌상을 비롯해 석가여래삼존불감 등 보기만 해도 화려함과 정교함에 입이 딱 벌어지는 불상 모작품 3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최근 작품인 꼭두각시 인형을 조각한 형형색색의 '꼭두'도 볼거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관장이 10여년전부터 작업해 온 고려불화를 나무로 옮긴 '아미타 삼존목각탱'과 '삼존여래목각탱' 등도 전시된다.

박찬수 관장은 "앞으로는 모작의 차원을 넘어 비구상과 추상작품 등도 많이 작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앞서 박 관장은 11일 오후 2시 행위예술가 강만홍 씨와 함께 '부처가 되고 싶은 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13일 오후 2시에는 '전통 목조각의 계승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선재동자원 돕기 종이 의상展
승복·생활한복 등 80여점 전시

종이로 옷을 만들면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종이공예가 문운숙씨를 비롯한 20여 작가가 모여 10일까지 LG패션 갤러리에서 '2002 우리 종이 의상展'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승복을 비롯해 생활한복, 여성용 드레스, 원피스, 모자 등 80여점의 생활의상이 선보인다.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 2m 정도 앞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특히 검색이나 흰색 여성용 드레스는 실크로 만든 것 같이 부드러워 탄성이 절로 난다. 자연 염색한 한지를 말려 50회~1백회



◇한지에 자연염색을 해 만든 문운숙씨의 '종이승복'.

정도 손으로 주무른 뒤 재단해 만든 종이 의상은 비실용적이지만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운숙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봉축을 맞아 의정부 선재동자원 56명의 원생들을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불교의 선(禪)을 현대무용과 선무도에 응용한 이선옥 교수의 '색즉시공'의 한 장면.

禪사상 현대무용으로 표현

선무창시자 이선옥 교수 '국제 예술축제' 공연

선무(禪舞)의 창시자 이선옥 교수(상명대 무용과)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예술축제와 심포지엄'에서 공연한다.

23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페스티발에 참가할 이선옥 교수의 선 무용단은 불교의 선(禪) 사상을 현대 무용과 선무기법에 녹인 '색즉시공'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이 교수는 염불과 판소리, 재즈의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해 이 교수만의 독특한 춤세계를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적운 스님(광운사 주지)이 '대금강론 선무도'에 대해 주제 발

표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적운 스님은 "선문도가 단순한 예술적 차원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 역할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APPAN(아시아-태평양 공연예법에 참가할 이선옥 교수)의 선 무용단은 불교의 선(禪) 사상을 현대 무용과 선무기법에 녹인 '색즉시공'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이 교수는 염불과 판소리, 재즈의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해 이 교수만의 독특한 춤세계를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적운 스님(광운사 주지)이 '대금강론 선무도'에 대해 주제 발

불교무용 새로운 장 열어

2002 이명미의 '옴마니 반 메혹...' 공연



◇춤추는 포교사 이명미씨가 궁중무용을 추고 있다.

9일 국립국악원 우연당에서 열리는 '2002 이명미의 춤, 옴마니 반 메혹 땅의 소리'는 생명의 근원인 땅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인간의 몸짓을 통해 결국 인간과 땅이 하나의 생명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춤이다.

국립국악원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장작무 '옴마니 반 메혹-땅의 소리'와 함께 태평무, 살풀이, 무고, 진주검무 등 다채로운 춤이 선보인다. 특히 선무도 동작을 흡사위로 재구성한 '옴마니 반 메혹-땅의 소리'는 진흙 위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춤동작을 통해 땅과

진흙서 역동적 춤동작
'인간과 땅은 하나' 강조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지를 열어 보인다. 팔공사 선무도 정공, 관정 사범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선무도를 춤동작과 접목시켜 불교무용의 새 장을 열어보고 있다.

이명미씨는 96년 창단된 최초의 불교무용단인 우바이무용단의 안무가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홍기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다. 신록이 절정을 이룬 앞산을 바라보며 다양한 초록색을 하나하나 감상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정말 초록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했다. 그러다 문득,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 저 신록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니, 놀랍고 신비로운 생각이 들었다. 이 신비를 무척하게 깨닫고 잘 요약해 놓은 사람은 운문문인(7~949) 선사이다.

운문은 인간의 세 가지 신비(三昧)를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품고 땅을 덮는다(覆地乾坤). 뭇 흐름을 끊어 버린다(截斷衆流). 파도와 물결을 따라 그 흐름을 같이 한다(隨波逐浪)." 일반적으로 이 말은 운문이 체험한 '절대'의 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렇게 풀이한다. "공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하늘을 담고 땅을 덮을 만큼 크다. 시간적으로, 인간은 흐르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인간은 만물과 더불어 소용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와 부딪칠 때, 활주로를 떠난 비행기처럼 비상하게 된다. 운문은 절대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세 구절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우주를 마음속에 품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은 '인드라(釋提)의 그물'이다. 세속현이 살고 있는 수미산 위 도리천은 인드라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망의 그물

운문의 '세 가지 신비'

하늘을 품고 땅을 덮는다
뭇 흐름을 끊어버린다
파도와 물결을 따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코는 구슬이라 고 한다. 그런데 그 구슬들은 모두 서로를 비추고 있어서, 하나만 보면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구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자신의 마음 하나를

보고 우주 전체를 훤히 파악한 것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시간의 흐름을 끊는 것" 즉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화엄에서는 '열 번째 시간(十世)'이라고 불렀다. 흐르는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가 있고, 그 각각은 다시 셋으로 나뉘어 총 구세(九世)를 이룬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엄인 삼매(三昧)를 체험한다. 유한한 생을 사는 인간이 영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절대를 경험한 인간이 다시 상대세계로 돌아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운문은 그것을 '물결 따라 흘러가는 인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보통의 흐름과는 다르다. 뭇 흐름을 끊어버린 경엄(截斷衆流) 뒤에, 다시 동승한 흐름(隨波逐浪)인 것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운문이 발견한 인생의 신비는, 인간은 죽은 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즉, 미래의 죽음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와 미리 체험하고, 생사를 넘어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원효가 제일 좋아했다는 화엄경의 구절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 일체 결함이 없는 자유인(一道出生死 一切無碍人)'도 같은 뜻인 것이다. 운문의 절창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야말로 인생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양을 인쇄시 30일전에 이미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일등)

시공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연꽃길 저크로커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와 의강등록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전대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곤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

• 종 소금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생을 없애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초파일 저녁 중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중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중등 보관상대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강출원

